

아름다운 샘

NO. 177
2022년 9월호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2 이모저모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연구역량 우수성 인정

06 굿닥터

난청의 치료와 관리
이비인후과 조창현 교수

07 포커스

공공의료본부 퇴원환자
연계사업 성과 진단

09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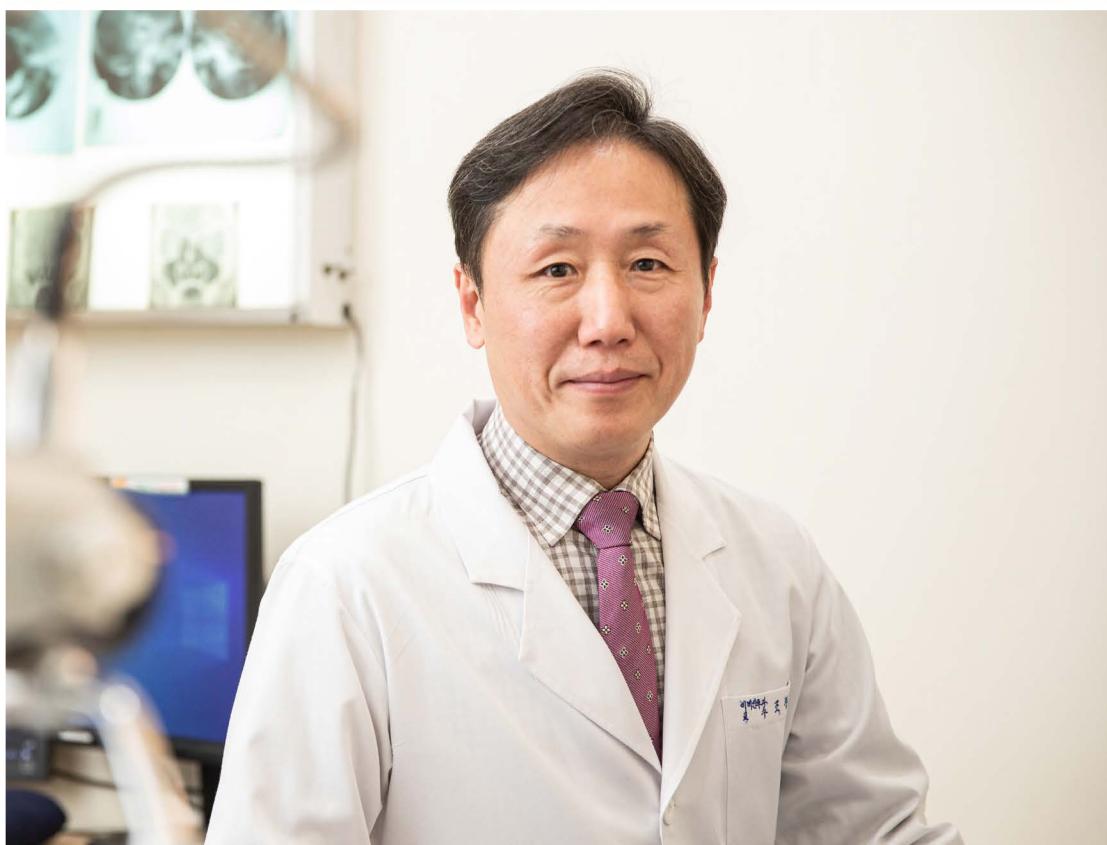
특수치료실 운영 10년
센터 소개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3회 연속 재지정 국내 TOP3 연구역량 및 기술실용화 우수성 인증

가천대 길병원이 2013년 보건복지부 1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이후 3년 주기로 진행된 평가에서 3회 연속 재지정을 받았다.

가천대 길병원은 특히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대사성질환과 뇌질환 분야를 특화한 연구와 기술사업화 성과가
상위에 랭크되는 등 우수한 연구 역량을 인정 받고 있다.



9월 굿닥터

**'잘 안 들리는 병' 난청
난청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이비인후과 조창현 교수**

9월 9일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정한
귀의 날입니다. 중요한 신체임에도
귀 건강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습니다.
9월 굿닥터 인터뷰에서는 '난청'을 주제로
이비인후과 조창현 교수와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06면



www.gilhospital.com 진료예약·문의 1577-2299

등록일 2008년 7월 29일 | 등록번호 남동 라 00014 | 발행인 이태훈 | 편집위원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
디자인 (주)케이크커뮤니케이션즈

연구중심병원 3회 연속 재지정 대사성질환 및 뇌질환 연구 개발 플랫폼 성과 인정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도입 10년째를 맞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인프라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산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하도록,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연구조직, 시설 및 장비, 연구 인력 등 연구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최근 3

년 실적과 계획 등 연구역량의 질 역시 대부분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가천대 길병원은 특히 최근 10여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사성질환 및 뇌질환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축해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연구역량을 강화시켰다.

가천대 길병원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뇌과학연구원인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을 설립한데 이어,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가천브레인밸리'를 구축해 현재

최고 기술인 11.74T MRI를 성공리에 개발 중이다.

김우경 병원장은 "가천대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재지정과 더불어 국내 최초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닉터 앤서 개발과 운영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등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임상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의과대학 2022학년도 제1차
전체교수 워크숍 개최

김우경 의무부총장, 전용순 학장 등 참석(8/20)



가천지역사회상생봉사단,
남동구 무료급식소 2곳에 쌀 800kg 기증
병원장실에서 전달식(8/18)



가천지역사회상생봉사단, 명절 맞아
남동구 취약계층에 상품권 1000만원 기부
지역 상품권 200가구에 전달(8/30)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주)카이미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 연구 협약

소화기암 조기진단 기기 연구(8/9)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보령R&D센터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개최

의료기술, 신약개발 관련 연구(8/16)



직장어린이집 '가천어린이집'
원생 참여 바자회 수의금 기부

가천대 길병원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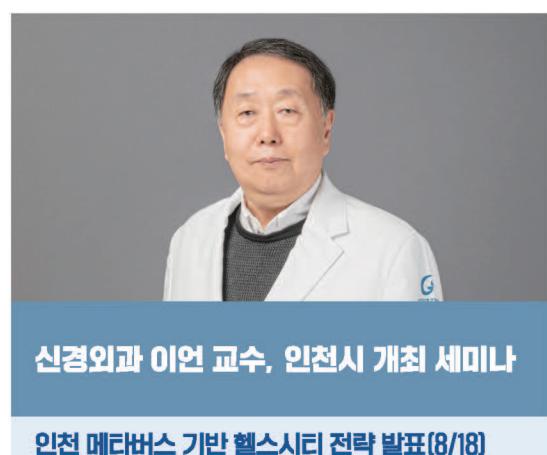


대한폐기혈입학회 참임,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 초대 회장 선출

"정밀의료를 통해 국내 폐기혈입 질환 극복" 포부



내분비대사내과
이시운 교수
외과
이준협 교수
세계적 학술지 출판사가 발간하는
<비리민과 호르몬-부갑상선>편 저자로 참여
부갑상선호르몬 유전자 체계적 서술



신경외과 이언 교수, 인천시 개최 세미나

인천 메타버스 기반 헬스시티 전략 발표(8/18)

가천대 길병원 인천 최초 로봇 췌십이지장절제술 성공 외과 이두호 교수팀, 27세 여성 환자 수술

개복 수술에 따른 흉터 및 회복 기간 최소화



△ 외과 이두호 교수(우측에서 두 번째)와 이지은씨(가운데)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지역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췌십이지장절제술에 성공했다. 가천대 길병원 외과 이두호 교수팀은 지난 4월 27세 환자 이지은씨를 수술했다. 이씨는 몇 달 전부터 복부를 중심으로 통증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건강검진 차 실시한 CT 검사에서 췌장 종양이 의심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은 이씨는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약 3cm 크기의

‘고형 가유두상 종양(solid pseudopapillary tumor)’을 진단받았다. 췌장에 생긴 주머니 모양의 물혹(낭성 종양)의 일종인 고형가유두상종양은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서 발생한다. 그 자체로 암은 아니지만 악성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는 전암성 병변이다. 이씨의 경우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부분 개복을 통해 췌장의 머리에 위치한 종양을 제거한다. 수술 후 큰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

다. 이 교수팀은 환자가 미혼의 젊은 여성인 점을 고려해 로봇 수술을 선택했다. 개복 수술에 비해 출혈이 적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수술로 인한 절개부위가 3cm 정도로 작아 환자의 회복 기간도 단축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다.

이 교수는 “통상 로봇 수술은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수술은 인천 최초의 로봇 췌십이지장절제술로 주목받았다”며 “환자 나이가 젊고 미혼이기에 40cm에 달하는 복부의 상처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0일 인천지역 최초로 로봇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다. 수술은 약 10시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수술 후 두 달이 지나고 최근 병원을 찾은 이씨는 “절제술이라고 하면 두려움이 컸는데 의료진들의 헌신과 친절에 회복에 대한 확신을 키울 수 있었다”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상처의 최소화, 빠른 일상 회복 등 수술 후 환자의 삶의 만족도까지 고려해 로봇 수술을 시행한 것이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좋은 결과를 맺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값진 일 실천하게 돼 영광”

조혈모세포 기증해 새생명 살린 수술실 정하정 간호사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정하정 간호사는 최근 혈액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의미의 ‘조혈모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각종 면역세포 등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고형암 등 혈액질환으로 인해 건강한 혈액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환자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의 이식을 통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혈

제자매에서 유전자형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치하지 않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조혈모세포은행을 통해 타인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

정 간호사는 간호사로서의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때, 조혈모세포 기증을 접하게 됐고, 기증 서약을 했다. 예비 간호사로서, 환자를 돋고 싶다는 생각으로 등록을 했지만, 혈연관계가 아닌 타인과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할 확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졸업 후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 수술실 간호사로 열심히 근무하던 정 간호사에게 올해 4월 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HLA가 일치하는 환자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 간호사

는 망설이지 않고 기증 절차를 진행했다. 정 간호사는 “수술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제 자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고 평소 다른 사람을 돋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웠는데 특별한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정 간호사는 기증 3일 전부터 입원해 하루 한차례씩 과립구집락자극인자(G-CSF) 주사를 맞으면서 하루 8시간 동안 조혈모세포를 채집했다.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주변의 칭찬에 대해 정 간호사는 “기증 과정을 겪는 동안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응원과 칭찬이 다소 민망하기도 하다”며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값진 일이다, 저에게도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들여다보기



▶ 신경과 박기형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22)
치매 예방할 수 있다

▶ 직업환경의학과 이완형 교수
YTN '뉴스' (7/23)
건설현장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

▶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KBS '뉴스' (7/27)
코로나19 자율방역 실효성은?

▶ 심장내과 박예민 교수
SBS '뉴스' (7/31)
'심장이 두근두근' 심방세동 환자 급증

▶ 정형외과 이병훈 교수
MBN '내 몸을 바꾸는 시간' (7/31)
100세까지 건강하게 관절을 지켜라

▶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
KBS '시사기획 칭' (8/2)
아이들에게 위험이 노출된 성범죄

▶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TBN라디오 '경인매거진' (8/18)
자살예방의날 지정과 의미

▶ 소화기내과 김경오 교수
조선일보 [스마트폰 없으면 '볼 일' 못보는 사람들] (7/1)
적절한 배변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

▶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교수
중앙일보 [연속혈당 측정기 가이드] (7/11)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 이점

▶ 내분비대사내과 이기영 교수
쿠키뉴스 [무설탕의 함정] (7/13)
설탕·사카린도 당 중독 원인

▶ 신경과 노영 교수
조선일보 [대상포진 후 뇌 염증] (7/14)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

▶ 신경과 성영희 교수
경인일보 [치매로 오해하기 쉬운 파킨슨병] (7/20)
파킨슨병 주요 증상과 치료

▶ 종양과 안희경 교수
한국경제 [HER2 양성 유방암 연구] (7/20)
Neo-PATH 임상 2상 결과 발표

▶ 응급의학과 양혁준 교수
조선일보 [해파리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 방법]



유튜브 [길병원TV] 핫클립



전공의 하루 생활 탐구!
내과 서재덕 전공의 브이로그
생생한 병원 생활 공개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하고 있는 의사를 전공의라고 합니다. 의대(6년)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전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내과, 외과 등 자신이 수련하고자 하는 전공과에서 입원환자 관리, 수술 어시스턴트, 연구 활동, 응급환자 진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중환자 파트를 맡고 있는 내과 3년차 서재덕 전공의의 하루 일상을 따라가면서 전공의들이 하는 일과 고민, 환자에 대한 생각 등을 솔직하게 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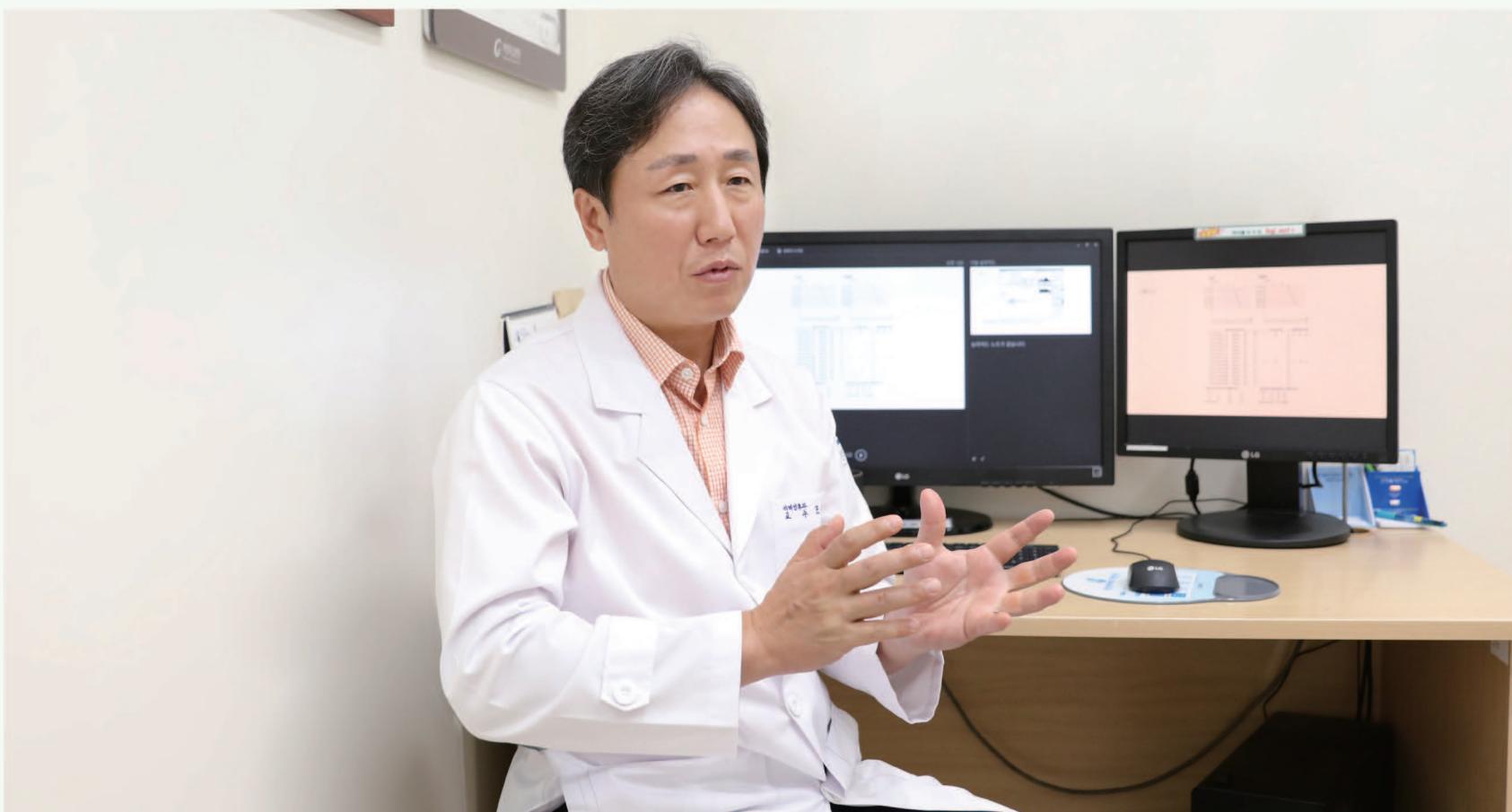


영양사가 직접 알려주는
당뇨식단 실전편!
1800kcal에 맞춘 건강식단



식품교환표는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 우유, 과일 등 비슷한 식품을 6가지 식품군으로 나눠놓은 표로, 같은 군 안에서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당뇨식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알맞은 양'에 대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식품교환표를 이용해 어떻게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하루 1800kcal를 섭취하는 경우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실제 식단을 통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식품교환표에 따른 1교환단위에 해당하는 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해서 적용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최미나 영양사와 식단 구성 실전에 도전해보세요!

더 많은 의학정보를 알고 싶다면? YouTube 길병원TV 를 검색하세요!



이비인후과 조창현 교수

“난청을 방지하지 말고, 보청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삶의 질 높아진다”

헬렌켈러는 ‘실명은 우리를 사물에서 차단시키지만, 청각장애는 우리를 사람으로부터 단절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질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귀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중이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나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 귀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난청 증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할 난청에 대한 궁금증을 대한청각학회 회장인 이비인후과 조창현 교수를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Q1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청력검사는 여러 소리에 환자가 반응하여 측정하는 주관적 검사와, 환자가 가만히 있어도 측정되는 소리자극 반응 등을 측정하는 객관적 검사가 있습니다. 국가검진에서 많이 경험하는 순음청력검사나, 어음검사 등이 주관적 경험을 판단한다면, 임피던스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등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정확한 난청 진단을 위해서는 주관과 객관적 검사가 결과가 매칭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2 노인성 난청은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인가요

돌발성난청처럼 약물치료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청력소실이 있는 반면, 노인성난청과 같은 감각신경성난청은 치료로 청력을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난청 수준 이전 중등도난청(청력역치 40~70dB) 단계라면 보청기를 통해 기계로 소리를 증폭시켜줌으로서 환자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시기를 놓쳤어도 인공와우이식 등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청각은 완전히 소실됐더라도 늦지 않게 병원에 오신다면 인공와우 등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3 난청이 치매로도 발전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노인성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사용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놓고 연구를 한 결과,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의 인지장애 위험이 높았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대인관계와 사회활동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우울감, 인지능력도 감소합니다. 난청이 있는 노인들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보청기 등 수단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청기 사용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청력이 거의 소실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가족에 이끌려 병원에 오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Q4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서, 학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설립된 학회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시작해 지금은 청각학 교수님들, 공대 교수님들, 딥러닝 분야 등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청각질환의 극복과 청각학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청각학회는 2026년 세계청각학회 유치에 성공했는데, 세계청각학회는 청각 관련 학회 중 가장 큰 규모로, 관련 분야에서 2만명 정도가 모이는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국내 청각 학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입니다.



이비인후과 조창현 교수

- ▶ 진료분야 : 난청, 보청기, 인공와우, 중이염
- ▶ 역력 : 대한청각학회 회장(2021~2023)
대한이과학회 교육이사, 간행이사
미국, 호주 등 인공와우 수술 연수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 가천대 길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활성화 환자의 퇴원 후 재활·주거·돌봄까지 연계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 가천대 길병원 공공의료본부에서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입원 치료 뒤 퇴원하는 환자 중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연속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퇴원계획을 수립, 연계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상반기 총 91건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했습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례 1

뇌졸중 환자, 주거환경에서 배우자에 대한 지원까지

○○○님(69세, 인천시 남동구 거주)는 지난해 뇌졸중으로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5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치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퇴원 이후에도 재활 등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님이 입원 후 배우자는 난방비·조차 지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우울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사회사업팀과 공공의료본부는 각 부서의 협력을 통해 환자의 퇴원 및 퇴원 이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자분께는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생활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알림, 배우자 사례관리 및 난방비, 식료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습니다.

☒ 사례 2

홀로 사는 노인 환자의 재활 계획도 OK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 중인 □□□(71세)님은 올해 뇌졸중을 진단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자택으로의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혼자 살고 있는데다,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및 재활에 대한 걱정이 커습니다. 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다학제 평가를 통해 그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퇴원 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 의뢰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등 퇴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자에게는 경인권역재활병원 방문 재활사업 참여, 인천 보조기기센터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노인장애인양보보험제도 안내 등을 지원했습니다.

☒ 사례 3

만성호흡기질환자,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도

남동구 거주민인 △△△님(69세)은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로 실려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는데, 최근 호흡곤란으로 두 번이나 응급실에 오게 되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이 커습니다. 다학제 평가를 통해 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환자는 119 안심콜 서비스를 등록해 향후 위급상황 발생 시 맞춤형 처치와 이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상담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식료품 지원과, 복지관 연계 도시락 및 가사지원 서비스도 신청해드렸습니다.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

가천대 길병원 공공의료본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서비스 대상	뇌졸중 환자 / 암환자 / 만성호흡기질환자 / 외상환자
신청방법	- 담당 의료진에게 의뢰 요청 - 공공의료본부에 직접 유선 상담 요청 (460-2052, 2054)
	입원 기간 중
	의료사회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퇴원 전후
서비스 내용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연계
	퇴원 이후
	퇴원 후 1개월·6개월 시점 건강 모니터링 제공

위암 수술 후 영양실조 발생 위험 미리 예측하고 관리 모델 개발

가천대 길병원 외과 박지현 교수는 서울대병원 이혁준 교수팀과 함께 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체중감소와 영양실조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근치적 위절제술은 위암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수술 후 체중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체중의 감소는 환자의 회복을 느리게 하고 이는 나쁜 예후로 이어질 수 있다. 박 교수는 위암 수술 후 영양실조 발생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 1,421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의 체중을 측정하고, BMI(체질량 지수) 감소에 미치는 요인을 찾아 이를 토대로 영양실조 예측 모델을 발표했다. 연구결과, 대상자 중 7.7%(109명)에서 심각한 체중감소를 보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여성, 수술 전 상대적으로 높은 BMI, 진행성 위암, 개복수술, 위전절제술, 루와이 위 우회술, 항암요법, 수술 후 합병증 등의 특성이 확인됐다. 대상자들 중 수술 후 6개월 시점의 체중이 기록된 환자 중에서 11.9%(152명)에서 심각한 영양실조가 확인됐다. 수술 전 낮은 BMI, 여성, 전체 또는 근위 위절제술 등 3가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영양실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고, 이를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해 검증한 결과 약 91% 정확도를 보였다. 박 교수는 “영양실조가 예상되는 환자에게는 집중적으로 영양을 보충해서 영양실조나 체중감소를 예방한다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회복을 앞당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Prediction Model for Screening Patients at Risk of Malnutrition After Gastric Cancer Surgery(위암 수술 후 영양실조 위험 환자 선별 예측 모델)’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출판사인 ‘스프링거(Springer)’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Gastrointestinal Onc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외과
박지현 교수

- ▶ 진료분야
위암, 위장관질환, 대사비만수술, 복강경수술
- ▶ 역력
국제위암학회 정회원
아시아종양학회 평생회원
2022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KSPEN) 최우수 구연상

세계 최초 에크모 환자 항생제 적정 투여 권고안 마련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위진 교수팀은 중증의 기저질환으로 에크모 (ECMO·체외막산소화장치)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감염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의 적정 투여 용량 권고안을 연구해 발표했다.

위 교수팀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성쇼크 또는 중증심부전으로 인해 에크모를 적용한 심장 중환자들 중 항생제인 피페라실린/타조박탐 (Piperacillin/Tazobactam)을 투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시간 대별 혈중 농도, 환자 및 에크모 관련 변수들을 분석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집단 약동학적 모델(Population pharmacokinetics model)을 구축하는데 사용됐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에크모 적용 시 피페라실린/타조박탐의 투여 권고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위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에크모 적용 환자에서 항생제인 피페라실린/타조박탐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약동학 연구”라며 “감염 합병증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에크모 적용 중환자에서 피페라실린/타조박탐의 집단 약동학과 용량 최적화 및 동반 신대체요법의 영향 연구(Population Pharmacokinetics and Dosing Optimization of Piperacillin-Tazobactam in Critically Ill Patients on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and the Influence of Concomitant Renal Replacement Therapy)’라는 제목으로 미국 미생물학회 공식학회지이자 세계적 수준의 SCI 저널인 <Microbiology Spectrum>에 매우 높은 저널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9.043)로 게재돼 주목을 받았다.



심장내과
위진 교수

- ▶ 진료분야
심장중환자(심부전, 심장성쇼크, 에크모, 심정지, 심장이식), 실신, 부정맥, 고혈압
- ▶ 역력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위원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한국심폐소생술지침 집필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최우수연구상

가천대 길병원 특수치료실 개설 10주년

가천대 특수치료대학원 재학생들 심리, 언어, 발달 치료 서비스 제공

미술·언어·심리·놀이치료 등 4개 분야

매년 100여명 어린이들이 '무료 치료' 혜택 받아

가천대와 길병원이 인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치료실'이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특수치료실은 마음과 신체가 병들어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인지학습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치료기법을 사용하여 심신(心身)을 치유하는 곳이다. 특수치료실은 가천대 길병원 뇌과학연구원 2층에 있으며, 이곳에서 제공되는 치료비는 전액 무료이다. 내담자(환자)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치료서비스를 선택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료실 운영은 특수치료(심리인지 언어 미술 음악 작업치료) 분야에서 명문 교육기관으로 이름 높은 가천대 특수치료대학원이 맡고 있다. 센터장인 박현주 교수(언어치료) 이외에 이해란 교수(심리인지치료), 임나영 교수(미술치료), 이주연 교수(언어치료) 등 가천대 교수들이 치료실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또 가천대 특수치료대학원은 특수치료학과를 2~3년간 재학하며 전문치료기법을 익힌 대학원생들을 치료실에 파견하고 있다. 센터장인 박현주 교수는 "길병원 환자는 물론이고, 환자 가족들에게도 특수치료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서 "모든 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니 많은 분이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천대 김다혜 조교가 매일 특수치료실에 상주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어린이 환자 부모들의 치료 상담에 응하고 있다. 길병원 특수치료실에는 최근 5년간 어린이 환우를 중심으로 매년 100여 명의 내담자가 방문하였으며, 950건 이상의 특수치료가 진행되었다.

가천대 특수치료대학원은 코로나19 사태 기간에도 길병원의 엄격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희망자를 중심으로 치료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 지난봄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이 사실상 해제되면서 최근 내담자들이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센터는 내담자들의 건강한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치료실 내부를 알코올로 소독하는 등 센터의 청결에 힘쓰고 있으며, 방역 소독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수치료실 김다혜 조교는 "센터를 방문하는 내담자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담자 학부모 면담은 물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라."고 말했다. 서비스 대상은 나이 제한이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다.

[치료 프로그램]

 인지학습치료	인지적, 발달적 및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수행 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과 관련한 문제점을 발견, 진단하고 인지학습치료를 제공합니다.	
 놀이치료	정서 및 행동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사회적 기술 및 자기조절능력의 어려움 등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제공합니다.	
 언어치료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 발음이 부정확한 아동,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미술치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나 생각은 이미지로 더 쉽게 나타납니다. 그림이나 만들기와 같은 미술 및 놀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고 자아의 힘을 키우도록 치료를 진행합니다.	
안내	문의 및 예약	032-460-2069 / gctherapy@gilhospital.com
	장소	뇌과학연구원 2층 특수치료실
	대상	전 연령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시간	월~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수요일 휴무)

△ 가천대 길병원 특수치료실

가천대학교 창업대학 개설 초대학장으로 서울대 장대익 교수 영입



△ 가천대 창업대학장 장대익



△ 가천대 창업대학 설명회

가천대학교가 학생들의 재학 중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대학(가칭 '가천코코네스콜')을 개설하고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가천대는 이를 위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장대익 교수를 영입, 창업대학 운영을 맡겼다. 장교수는 진화학자, 과학철학자, 창업가로 현재 (주)트랜스버스 대표, 구글코리아 앱생태계 상생포럼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인지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저서로는 '다윈의 식탁', '울트라 소셜' 등이 있다.

가천대는 창업대학의 특화된 커리큘럼과 창업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해 재학 중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대학은 창업학기와 창업활동프로젝트학기로 2단계로 운영되는데 창업학기제는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서류평가와 인터뷰 등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1차로 40명의 학생을 선발, 창업과 관련된 기본 소양 교육을 진행한다.

가천대는 창업학기제 학생 선발에서 학생들의 도전정신, 열정과 끈기, 학습력, 추진력, 회복탄력성 등을 평가한다. 최근 실시한 첫 모집에 다양한 전공의 학생 120여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선발된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스타트업 창업프로젝트, 기업가 정신, UX와 서비스 기획 등 6과목 18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창업활동학금 100만원 지급, 창업부전공 인정, 현직 기

업전문가들의 창업실무 멘토링을 지원한다. 가천대는 이를 위해 올 초 준공한 AI공학관 6층(약 2,560m²)을 미래형 창업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곳에는 IT 기업 등 스타트업이 입주하고 아이디어 회의 등이 가능한 라운지, 사무실, 세미나실, 커뮤니티 시설 등이 꾸며져 창업대학 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가천대 이길여 총장은 "지금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대로 캠퍼스 창업문화 조성과 창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결정했다"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구체화되고 이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생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가천대-캐나다 앨버타대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선정 차세대 반도체 기반 바이오센서 구현위한 첨단기술 개발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 유호천 교수팀과 캐나다 앨버타대학 Manisha Gupta 교수팀이 한국연구재단과 캐나다 Mitacs Global Research Internship Program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공계 대학원생 캐나다 연수 프로그램'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사업선정으로 가천대 연구팀의 이동현, 서주형, 박태현 학생(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 박사과정)은 내년 6월까지 캐나다 앨버타대학의 Manisha Gupta 교수 연구팀과 함께 차세대 바이오 센서 구현을 위한 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세 학생은 '광증폭형 자가조립 단분자층의 원격 도핑 효과 기반 고감도 바이오 센서', '유기전기화학형 트랜지스터식 고성능 바이오 센서', 그리고 '다중 논리 회로 기반 유기전기화학식 바이오센서' 연구를 맡아 각각 수행하게 된다. 이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캐나다 양국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양국 대학 간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및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하여 개설됐으며 미래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캐나다의 대학에 5개월간 방문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국내 과학기술 전 분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엄중한 심사를 거쳐 가천대,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 11개교가 선정되었으며 가천대생 3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연수생이 캐나다로 파견되어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책임자인 유호천 교수는 "가천대학교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캐나다 대학의 우수 연구팀과 협력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앨버타대학 방문 연구를 통해 세 학생의 국제연구수행 능력을 높이고 세계수준의 연구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의 소리

고객이 칭찬한 당신을 칭찬합니다

고객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우리병원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감동과 친절을 선물한 우리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수많은 감동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객의 소리는 홈페이지,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친절로 되돌아옵니다.



내분비대사내과 박이병 교수

주변의 추천을 받고 가천대 길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지만 거리가 멀어 망설여졌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저를 위해 박이병 교수님은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진료를 봐주시고 제 상태에 맞게 바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겁 먹은 환자를 다독여 주시고, 첫 진료날부터 친절하고 빠르게 검사받고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졌습니다. 김OO님



안과 이종연 교수

안압이 상승해 검사를 받게 됐고 백내장이 수술해야 할 단계로 진단돼 여러 검사 후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기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종연 교수님과 류경제 전공의님, 황현아 간호사님이 잘 챙겨주셔서 지금껏 힘들었던 일들을 보상받은 것처럼 기분 좋게 귀가했습니다. 수술 결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OO님



신경외과 유병래 교수

수술을 받은 후 첫 외래 방문 시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님들이 환자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눈을 떼지 않고 살펴주셔서 안심했습니다. 유병래 교수님이 제 상황을 잘 설명해주셔서 향후 재활에 대한 의지도 높아졌습니다.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OO님 보호자



흉부외과 박철현 교수

흉부외과 박철현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심장 질환으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는지 지금도 떠올리기 싫습니다. 집도를 해주신 박 교수님을 처음 뵙던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얼마나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진 오실 때마다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OO님



외과(유방암센터) 전용순 교수님

유방암 진단을 받고 불안, 초조해하는 저에게 신뢰와 용기를 주신 의료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해주신 명의 전용순 교수님은 물론이고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저에게 자상한 설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민희 선생님, 웃음과 친절로 간호해주신 변은진 간호사님 등 인공지능병원 11층 병동 모든 의료진들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도 잘 받겠습니다. 방OO님

고객의 칭찬

진료부 | 내분비내과 박이병 **비뇨의학과** 정한 산부인과 권경연(전공의), 김석영, 송한송(전공의), 안선아(전공의) **성형외과** 김유진, 문보민(전공의) **소아청소년과** 김효정, 선용한, 이명연(전공의) **신경과** 신동진, 한만경(전공의) **신경외과** 유병래 **심장내과** 강웅철 **안과** 류경제(전공의), 이종연 **외과** 김민희, 박홍규, 전용순 **신경외과** 김우경, 정태석, 황의준(전공의) **치과** 김성범, 조진용 **혈액내과** 김윤정(코디네이터) **호흡기내과** 한영현(전공의), 정성환 **흉부외과** 박철현

간호분부 | A108W 김소연, 김학현, 박예인, 서혜영 A128W 김혜민 A148W A148병동, 조성수(이송팀) A158W A158병동 A168W A168병동, 김희원, 민다윤, 장수정, 조규현, 최수진 A78W A78W병동 A88W 김필숙(NA), 김현정, 문소정, 성수경, 이예나, 이지은, 허소영, 홍은영 A98W 박혜정, 손정숙, 안진섭, 이미희 C10AW 권영준, 김은정, 이송미, 최희준 C10BW C10B병동, 김민서, 심예지, 천숙자, 최소영 C5AW C5A병동, 최진경, 황금순 C6AW C6A병동 C7AW C7A병동 C8BW C8B병동, 권오윤, 류경, 박선진 C9AW 김태연 E1CU E1CU I106W 박예림, 박청랑, 선예지, 심채영, 이윤아, 이정림, 장효은 I116W 김유리, 김정훈(이송팀), 변은진, 송민지 I126W 김지수, 서지희 I136W I136병동, 양은진 I146W I146병동, 안세진 I156W 지민경 M7W M7층병동, 김연정, 윤미진 MDR 분만실, 이소은 MICU2 내과계집중치료실2 NSICU 험력 R10W 박진희(석고실), 이지희, 전성애 R7W 김경희, 민노경, 이수진 SICU 김경동 **비뇨의학과외래** 김민영 **성형외과외래** 박현주 **안과외래** 황현아 응급실 박현탄 **인공신장실** 우시윤 **주사실** 이지예, 최인혜 **척추센터** 안용 **통원치료센터** 통원치료센터 **호흡기내과외래** 천은진, 호흡기내과외래

진료지원부 | 국제의료센터 김영광 물리치료팀 심성보, 장혜선 방사선종양학팀 최희송 **영상의학팀** 고지석 **치과외래** 구현선, 유진

행정부 | 사회사업팀 유지연 **재난방재팀** 강명순, 김미순(미화), 김은기(미화), 전진옥(미화) **콜센터** 김연주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주기 1차[2020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1등급

- 수술 중 감염 예방을 위해 적정 항생제를 투여하는 행위
- 항생제 최초 투여 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영역 등 4개 지표 모두 우수
- 평균 점수 99.8점으로 최우수 역량 인증

9차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 2010년 10월~2021년 3월까지 응급실 내원해 입원 치료를 받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 대상
- 9개 지표에 대한 종합점수 99.98점, 상위 20% 1등급 획득
- 역대 평가 포함, 9회 연속 1등급 쾌거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기부는 사랑입니다 ❤️

김OO(62세)님은 약 2주 전부터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부어오르며 발등 부위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걷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비 발생을 염려하여 치료받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결국 극심한 통증으로 인근 병원을 찾게 됐고 골수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로 오게 됐습니다. 입원 후 정밀검사 결과, 그는 '배농관을 동반한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치료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가락을 일부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상태는 다소 안정되었지만 치료비를 마련한 방법이 없어 사회사업팀에 상담 의뢰되었습니다. 김OO님은 오래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와도 모두 연락이 두절돼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식도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이었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가족, 친인척도 전혀 없어 의료비는 물론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사업팀은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지상담을 제공하며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의지를 격려하는 한편, 의료비 지원을 위해 지원처를 모색한 끝에 기부자의 후원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지원금을 연계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치료와 주변의 관심, 도움으로 퇴원하였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필요한 치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후원계좌번호 100-014-147300 [신한은행, 예금주: 길의료재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요 시 사회사업팀[032-460-353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병원 이용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가천대 길병원 모바일 앱

가천대 길병원 모바일 앱

병원 이용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가천대 길병원 모바일 앱

가천대 길병원 모바일 앱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앱 설치 페이지로 안내해드립니다.

가천대 길병원 모바일 앱 특징

- 의료진 찾기** 원하는 의료진을 한눈에 확인 가능
- 내 일정** 자신의 일정을 한눈에 확인 가능
- 진료예약** 내 진료예약을 한 번에 조회 가능
- 진료비 결제** 수납대기 없이 앱으로 바로 결제
- 실손보험청구** 서류없는 초간편 보험청구 가능
- 처방약 조회**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정보 조회 가능
- 건강수첩** 개인의 건강 상태를 직접 기록 가능
- 내 번호표** 번호표를 미리 발급 가능
- 전자처방전 전달** 처방받은 약을 손쉽게 수령 가능

